

2021년 6월 4주 |

키움 ESG Week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 글로벌 ETF/주식 김진영 02-3787-4870 / jykim@kiwoom.com

RA 이지민 02) 3787-4776 / jimin.lee@kiwoom.com



Weekly Issue:

미국도 상장사 ESG 정보공개 의무화에 속도낸다

- 美 하원, 상장사들로 하여금 ESG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ESG 지표들을 공개해야 하고, 기후 리스크, 정치적 지출, CEO 급여 및 과세 비율과 같은 특정 ESG 이슈에 대한 기대치 또한 공개해야 함
- SEC도 오는 10월까지 기후 변화 및 ESG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예정. 다만, 이와 관련해 아마존, 세브론, 월마트 그리고 일부 뮤추얼펀드들은 SEC가 ESG 공시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
- 아마존, 알파벳, 이베이 등 여러 테크 기업들이 보낸 공동 서한에 따르면, 현재 기후 정보 공개는 기업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담긴 추정치 및 가정에 의존한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 기후 관련 공시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책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필수이지만, 10-K, 10-Q 등의 공시자료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

美 하원, 상장사들로 하여금 ESG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

A BILL

To provide for disclosure of additional material information about public companies and establish a Sustainable Finance Advisory Committee,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

SEC. 2. FINDINGS.

Congress finds the following:

- (1)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has broad authority to requir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f such information is in the interest of, or is material to investors.*
- (2) *The Commission does not require companies to disclose inform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matters, and does not require companies to adhere to standards for disclosing such information.*
- (3) *Investors have reported that voluntary disclosures of ESG metrics are inadequate.*
- (4) *A rule requiring reporting and standardization of ESG disclosures is in the interest of investors.*
- (5) *ESG matters are material to investors, and the Commission must establish standards for disclosure of such matters.*

자료: 美 의회

주간 ESG 뉴스

국내외 주요 ESG 뉴스 Update (6/14~18)

▲ 기후 및 환경 관련

6/14	<p>Indonesia aims to sell only electric-powered cars, motorbikes by 20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에너지장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에 따라 인도네시아 또한 2050년부터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전기차와 전기오토바이만 판매할 예정이라고 언급. 구체적으로 2040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오토바이는 전기오토바이로, 2050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전기차여야만 한다고 설명 -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국가 중 인구가 4번째로 많은 나라로 연간 평균 650만대의 오토바이와, 약 1백만대의 차량 매출을 기록.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약 1,500만대 이상의 자동차와 1억 1,200만 대의 오토바이가 사용되고 있음.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대기 오염이 극심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지역 -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자동차 기업 'Gojek'은 지난 4월 2030년까지 자사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제품을 모두 전기로 구동되게 할 것이라고 발표. 자카르타 또한 2056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중단하고 해당 지역을 탄소 중립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 설정 <p>https://reut.rs/2S05zy</p>
6/14	<p>'석탄발전 안돼'...G7, 올해 신규 지원 중단 전격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들, 올해 말까지 석탄 발전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신규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탈(脫)석탄에 필요한 기술과 정책을 신속히 확대하기로 약속 - 이들은 13일 공동성명에서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에 대한 지속적 투자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 - 덧붙여 G7 정상들은 "녹색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축소, 생물다양성 위기의 반전을 통해 2021년을 지구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 <p>https://bit.ly/3p5iVM9</p>
6/14	<p>Europe carbon prices expected to rise to 2030—industry surve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배출권거래협회(ETA)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EU 회원국들은 EU ETS의 탄소 가격이 ▲2021~2025년 톤당 평균 47.25유로, ▲2026~2030년 58.62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는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세운 결과로 분석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2021~2030년 진행되는 ETS 3 Phase 하에 톤당 평균 31.71유로에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 - 한편 응답자의 대다수가 올해 5월 거래를 시작한 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UK-ETS)가 2023년까지 EU의 제도와 연계될 것으로 전망. 또한 조사 응답자들은 글로벌 기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평균 탄소 가격이 2030년까지 톤당 63.20유로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p>https://reut.rs/3gq20F4</p>
6/14	<p>U.S. Department of Energy Announces New Vehicle Technologies Funding and Future Partnerships with Battery Indust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에너지부(DOE), 국립 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커넥티드카 프로젝트에 향후 5년 동안 \$2억 지원하기로 결정. 이와 더불어 전기차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 마련 파트너십을 발표 -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기차 산업의 혁신을 추구. 기금은 17개의 국립연구소로 구성된 DOE 네트워크에 지원되며, DOE 차량 기술 사무소에서 관리 - DOE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지속 가능한 채굴·가공 작업에서 제조·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배터리 공급망에 초점. 또한 이러한 과정은 전국에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생성하고, 더 친환경적인 전기 자동차를 도로에 내놓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 <p>https://bit.ly/3iiEd3</p>
6/15	<p>Global fossil fuel use similar to decade ago in energy mix, report say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에너지 정책 네트워크 REN21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 에너지 수요 증가, ▲신설 화석연료 공장에 대한 꾸준한 소비와 투자,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부진한 사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여전히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비용이 하락하고, 각국 정부들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만큼 높은 수준 -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80.2%로 2009년 80.3%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었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같은 기간 8.7%에서 11.2%로 상승하는 데 그침 - 많은 국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 19 경제 부양안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추가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재생에너지 투자는 화석연료 투자의 약 6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 <p>https://reut.rs/2RVISBL</p>
6/15	<p>영국, 세계 최초로 자연자본계정 작성 지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국가표준기구(BSI), 세계 최초로 '자연자본 계정(natural capital accounts)' 작성을 위한 가이드선 발표. BSI에 따르면,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기업 및 기관들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성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손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전망 - 영국, 최근 생물다양성과 금융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난 1년 동안 생물 다양성이라는 이슈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이번엔 새로운 표준인 'BS 8632: 조직을 위한 자연자본회계(Natural Capital Accounting for Organisations)'를 제시. 여기에 자연자본 회계를 위한 명세서, 용어 정의, 원칙, 단계 및 산출물에 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음 <p>https://bit.ly/2S2aKTx</p>

<p>6/16</p>	<p>영란은행,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어떻게 진행했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란은행(BOE),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시작. 이번 테스트의 목적은 영국 내 대형 은행 및 보험사가 기후 변화에 따라 어떤 금융 리스크를 겪게 될지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시행 - 영란은행은 30년(2021~2050년)을 기준으로 된 3개의 시나리오 ▲조기 대응(2021년 탄소 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시작해 2050년 이행 목표 달성하는 시나리오) ▲자연 대응(2031년부터 전환 시작해 2050년 이행 목표 달성하는 경우) ▲무대응(탄소배출감축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2050년에 이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을 제시. 각 시나리오에 따라 탄소 가격 상승, 재생 에너지 전환, 자연재해 같은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 - 영란은행은 기후 변화에 따른 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와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로 구분. 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해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의미, 후자는 저탄소 경제(low-carbon economy)로 가는 과정에서 환경 정책과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혼란이나 손실을 뜻함 <p>https://bit.ly/3iPvtVM</p>
<p>6/16</p>	<p>탄소국경세 WTO가 허락할 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열린 EU-미국 정상회담에서 탄소 국경세가 논의됨. 양측은 EU-미국 간 고위급 기후대응그룹(High-level Climate Action Group)을 설치해 기후변화 대응에 상호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합의 - 이들은 2050년 탄소중립 경제 달성 및 2030년까지 강력한 기후정책 조치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위해 석탄을 퇴출시키고, 2030년까지 저탄소 배출 전력생산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협력하겠다고 선언. 기후외교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 - 다만 탄소 국경세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EU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미국 상품에 곧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양국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 <p>https://bit.ly/3cV3lao</p>
<p>6/18</p>	<p>미 메인주, 미국 최초로 화석연료 투자 철회 법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투자 철회를 법제화. 이에 따라 자산규모 176억 달러의 메인주 공무원연금펀드는 2026년까지 화석연료 자산을 매각해야 함 - 뉴욕주를 비롯한 일부 주의 공무원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유와 가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니, 이는 공무원금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 -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비탈리 메인주 상원 의원은 "화석연료 산업은 과거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며 "투자 철회 움직임은 재무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 <p>https://bit.ly/3iWdUmQ</p>
<p>▲ 기타/통합</p>	
<p>6/14</p>	<p>한기평, 채권·회사채에도 ESG 반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기평, 신용평가시 ESG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겠다고 언급. ESG 채권과 같은 특수목적채권 외에도 회사채 평가에 ESG 요인을 고려하겠다는 것 - 한기평은 이를 위해 ESG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ESG 위험요인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 이번 평가방법론 제정에 따라 ESG는 별도의 기타평가 요소로 반영될 전망 - ESG를 기타평가 요소로 적용해 신용평가에 반영할 경우, 신용도 강화요인보다는 신용도 하향요인으로 반영되며, ESG 요인을 잘 관리한다면 사업적으로도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등 사업평가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 <p>https://bit.ly/2IHR1xq</p>
<p>6/16</p>	<p>Technology can improve ESG report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A(美 공인관리회계사협회)와 국제 회계사 연맹(IFA), SEC의 기업 기후변화 공시 관련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해당 제안에 동의하는 의견 제출. 덧붙여 IMA에서는 블록체인, A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기업들의 ESG 공시 프로세스와 투자자 및 규제기관의 정보 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견 제출 - 특히 향후 ESG 공시 표준이 마련되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ESG 공시에 보다 도움될 것이라고 지적.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치 창출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대량의 데이터도 몇 초 안에 처리 가능하며, 블록체인 RPA 등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환경에서 ESG 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기회 갖게 됐다고 설명 <p>https://bit.ly/3cYQPfl</p>
<p>6/17</p>	<p>House Passes ESG Disclosure Rule Requirement for Public Compan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하원, 상장사들로 하여금 ESG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ESG 지표를 공개해야 하고, 기후 리스크, 정치적 지출, CEO 급여 및 과세 비율과 같은 특정 ESG 이슈에 대한 기대치 또한 공개해야 함 - 한편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리스크, 이사회 다양성 그리고 노동력 관련 문제들과 관련해 투명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언급. <p>https://bit.ly/3gGn9pD</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국내외 기업 ESG 동향 Update (6/14~18)

▲ 기후 및 환경 관련

대형보험사 AIG까지..영국 최대 자산운용사 LGIM 블랙리스트 올라

- 영국 최대 자산운용사 LGIM이 AIG, 중국국영기업은행(ICBC),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에너지 기업인 PPL, 중국 명유유업(Mengniu Dairy) 등 4 개사를 기후변화 위험에 대해 불충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유자산 중 일부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 해당 기업들은 LGIM의 기후 '블랙리스트'에 속해 있는 9개사(중국건설은행, 메트라이프, 일본포스트, 한전(KEPCO), 엑손모빌, 로즈네프트, 시스코, 호르멜, 로블로 등)와 같은 운명이 될 위기에 처함
- 6/16 - LGIM은 '기후임팩트 약속(Climate Impact Pledge)' 프로그램에 따라, LGIM이 관리하는 8700만달러(970억원) 규모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부문별 최소 기후요건 및 '레드라인'을 규정. 레드라인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경영진에 대한 반대투표와 지분 매각 등을 추진
- LGIM은 4개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 외에도 130개 기업의 연간보고서와 회계자료에 대해 최소한의 기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1년 주주총회 시즌 동안 반대표 행사한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xzrOzn>

▲ 기타/통합

Companies Spend Big on ESG Investments, Hoping for Long-Term Payoff

- 글로벌 기업들, 탄소 배출 감축 등 기타 ESG 성과 목표 달성하기 위해 신규 시설과 제품에 투자 늘려나가는 상황. 유틸리티 및 차량 제조 기업은 배기가스 배출량 절감을 위해, 필립 모리스와 같은 담배 제조 업체는 금연 제품에 투자 확대
- 현재 기업들은 투자자, 국회 의원 및 규제 당국들로부터 점점 더 강한 압력 받고 있는 상황. 이들은 기업의 지출 계획, ESG 목표 달성을 위해 그들의 작업 진행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야 함. 그 결과 GM, 포드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Xcel 에너지, 센터포인트 에너지와 같은 전력 기업들은 더 많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노력 중
- 6/14 - 정량화하기 어려운 성과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한편, ESG 관련 이슈에 적은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신용 등급 하향 조정과 같은 리스크를 감수해야함. 신용등급 강등은 기업의 대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데 그 예시가 바로 셰브론과 엑손모빌
- 정책 입안자들과 규제 당국이 ESG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업들의 ESG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 (S&P Global Ratings)

<https://on.wsj.com/3qbc3Mw>

PwC planning to hire 100,000 over five years in major ESG push

- PwC, 새로운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들이 어려워하는 기후 및 다양성 관련 정보 공시 관련 문제 그리고 AI 부문에 향후 5년간 약 \$120억 투자해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라고 주장
- 6/16 - PwC에 따르면, 과거에는 ESG 공시 프레임워크에만 초점을 맞춰 좁은 시야에서 ESG 문제에 접근했다면, 이제는 ESG 요소가 전사 업무에 포함될 것이므로 모든 직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 향후 기후 리스크 및 공급망과 같은 부문에서는 ESG 파트너 및 임직원 교육을 늘려나가고, ESG 아카데미를 신설할 계획

<https://reut.rs/3zzmeji>

Cathie Wood Blames Bitcoin's Fall on ESG and Elon Musk

- 캐시 우드 ARK Invest CEO,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는 1) ESG 투자자들 2) 비트코인 채굴에 드는 전력 소모량과 해당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드는 작업량에 대한 인식 3) 머스크 테슬라 CEO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반복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
- 6/17 - 덧붙여 Talen Energy와 같은 전력 생산자들이 빠르게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채굴 시 발생하는 전력 절감 가능할 것이며, 상업용 전력 생산자들이 비트코인 채굴 기계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일론 머스크가 다시 비트코인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
- 한편 각국 정부 및 정책입안자들이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소를 폐쇄하는 데엔 한계 있을 것이라고 지적. 만약 폐쇄를 시행해도 이들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https://bit.ly/2SP4T4j>

Amazon, Chevron Push SEC to Curb Climate Reporting Liability

- SEC, 오는 10월까지 기후 변화 및 ESG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할 예정. 이와 관련해 아마존, 셰브론, 월마트 그리고 일부 뮤추얼펀드, 연기금 단체는 SEC가 ESG 공시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
- 6/17 - 아마존, 알파벳, 이베이 등 여러 테크 기업들이 보낸 공동 서한에 따르면, 현재 기후 정보 공개는 기업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담긴 추정치 및 가정에 의존한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어주는 안된다고 지적. 기후 관련 공시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책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필수이지만, 10-K, 10-Q 등의 공시자료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

<https://bit.ly/35HyMGC>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ESG 투자 동향 (6/14~18)

▲ 주식 및 펀드 시장

6/14	<p>Norway wealth fund to vote for shareholder climate initiative at Delta Air AG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조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 14일(현지시간) 델타항공이 기후 관련 로비 활동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주주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 특히 이들은 6/17 일 개최되는 정기 총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거절의사를 표시하라는 경영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안을 지지할 계획 - 동시에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당사의 웹사이트에 해당 제안과 관련해 "이사회는 기업이 직면한 주요한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제품 및 기업 경영과 관련된 광범위한 ESG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게재.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20년 말 기준 7,790만 달러 규모의 델타항공 주식을 보유 중 (전체의 0.3% 수준) <p>https://reut.rs/2U8wuOn</p>
6/14	<p>중화권 기관 투자자 최애주는 ESG ET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이 최근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의 300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향후 5년간 운용자산의 11~20%를 ESG ETF로 채울 계획이라고 답변 - 중국 본토의 응답자 중 92%는 ETF를 포함한 ESG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홍콩에서는 98%, 대만에서는 84%의 응답자가 ESG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 - 이처럼 중화권에서 ESG ETF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 상품의 수익성에 있어서 의구심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본토의 응답자 중 42%가 ESG ETF의 수익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 <p>https://bit.ly/3pRCuHb</p>
6/16	<p>Most ESG funds outperformed S&P 500 in early 2021 as studies debate wh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관련 펀드 절반 이상이 2021년 초 S&P 500 지수 성과를 아웃퍼폼 한 것으로 나타남 (S&P Global Sustainable1). '20년 12월 31일부터 '21년 5월 15일 사이 27개의 ESG ETF·뮤추얼펀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16개의 펀드가 S&P 500 지수 성과를 상회. 16개의 펀드들은 해당 기간 동안 11%~29.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S&P 500은 10.8% 증가. 뿐만 아니라 27개의 ESG 펀드들은 해당기간 동안 상승폭 차이는 보였지만,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 NYU/Rockefeller 재단이 ESG 및 기업의 재무 성과와 관련하여 2015년 ~ 2020년 공동 진행한 1천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분석한 결과, ESG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성과를 단기간에 살펴보는 것 보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한 경우) 장기 성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영향이 발견될 가능성이 76%로 나타남 - 즉, ESG와 관련된 기업의 재무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예를 들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 관련 투자는 단기적으로 재무 성과를 개선시키지 못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ESG와 기업 재무 성과 사이에 58%의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남 <p>https://bit.ly/3cXQolA</p>
6/17	<p>Analysis: Investors ask U.S. SEC for more ESG disclosures as companies resi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상장기업 기후변화 정보 공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14일 마감된 가운데, 대형 투자자부터 개인투자자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기업의 투명한 ESG 정보 공개에 대해 거세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자, 환경 단체, 공익단체 등 500여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Ceres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재 기업들의 기후 변화 공개 상태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요지의 서한을 SEC에 전달. 반면 석유화학 및 은행 관련 업계 및 로비 기업들은 SEC가 ESG 정보 공개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 -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변화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임명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하에서 미국 내 상장 기업들의 ESG 의무 공시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오는 10월 SEC는 ESG를 포함한 기후변화 정보 공시와 관련해 새로운 규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 <p>https://reut.rs/2UeZzrj</p>
6/17	<p>European ESG Assets Are Hitting New Recor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해 유럽 내 펀드로 유입된 신규 자금 중 절반 가량이 ESG 펀드로 유입. ALFI(룩셈부르크 펀드산업협회)에 따르면 ESG 투자를 목표로 하는 상품들로 €1.12조(\$1.4조) 규모의 자금이 유입 되었는데, 이는 유럽 펀드 전체 AUM 중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ALFI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투자의 전체 자산은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 했으며, 자산 관리자들 또한 기존의 펀드 상품들보다 지속가능한 펀드에 자산을 더욱 많이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p>https://bit.ly/3wHlvtY</p>

▲ 채권 시장

6/14	<p>Repsol to present new green "transition" framework to inves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석유·가스 기업 렉솔(Repsol), 금융 프레임워크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채권 발행 예정. 이를 위해 HSBC, Natixis가 협업할 예정. 새로운 프레임워크 하에서 Repsol은 지속가능 채권, 녹색 채권과 같은 채권들을 발행할 수 있게 됨 - 동사는 "이번 프레임 워크와 함께 렉솔의 지속가능 로드맵이 금융 전략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되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졌다"고 설명 <p>https://reut.rs/3pRAw9u</p>
------	-----------------------------------------------------------------------------------------------------------------------------------------------------------------------------------------------------------------------------------------------------------------------------------------------------------------------------------------------------------------------------------------------------------------------------------------------------------------------

6/15	<p>HP, 2030 5대 5 리더십 양성평등 맞춘다... 10억 달러 지속가능 채권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 자사의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채권을 발행하는 '지속가능한 채권 프레임워크(Sustainable Bond Framework)'를 발표. 최근 10억 달러(1조 119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향후 최대 2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 - 채권 발행을 통한 수익금을 재생 에너지, 녹색 건물, 에너지 효율, 청정 운송, 순환 경제, 천연 자원 및 토지 이용 등 8개 주요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프로젝트에 배정할 계획 - HP, 2022년부터 채권발행에 따른 순이익이 프로젝트에 완전히 배분될 때까지 매년 지속 가능한 영향 보고서와 지속 가능한 채권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 <p>https://bit.ly/3gH78jl</p>
6/15	<p>하나은행, 4350억원 규모 'ESG 후순위 채권'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은행, 4,350억원 규모의 원화 ESG 후순위채권 발행에 성공. 이번 발행은 ESG 채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사업에 사용하는 '녹색채권'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사회채권'이 결합된 지속가능채권의 형태로 구성 -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월 ▲2030년까지 ESG 금융 총 60조원 추진 ▲2050년 까지 탄소배출, 석탄 PF 전면 제로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3대 핵심전략과 9대 핵심과제 선정 ▲이사회 내 ESG 전담기구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룹 ESG 중장기 추진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 <p>https://bit.ly/3gGwgpi</p>
6/17	<p>5년만에 녹색채권 지침 개정, 정량적 효과까지 측정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자본시장 협회(ICMA),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녹색채권 지침을 개정. 이번 업데이트에는 녹색채권 시장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및 투명성 권고 사항 등이 포함. 더불어 녹색채권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공개 - 이번에 개정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발행자의 투명한 공개정보를 골자로 하며, 녹색채권 발행의 핵심인 ▲자금 사용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자금 관리 ▲영향 보고 각 단계에서 투명성, 정확성 및 무결성을 충족할 것을 권고 - 뿐만 아니라 각 프로젝트 별로 환경 성과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들을 함께 공개하고, 각 부문별 가장 중요한 녹색 프로젝트를 손꼽기도 함. ICMA에 따르면 기후변화 완화 항목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깨끗한 수송, 녹색 빌딩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고, 생물다양성 항목에서는 생활 자원과 토지 관리, 공해 예방에서는 지속가능한 물 사용과 폐수 관리 등이 주목 <p>https://bit.ly/35Ccvtl</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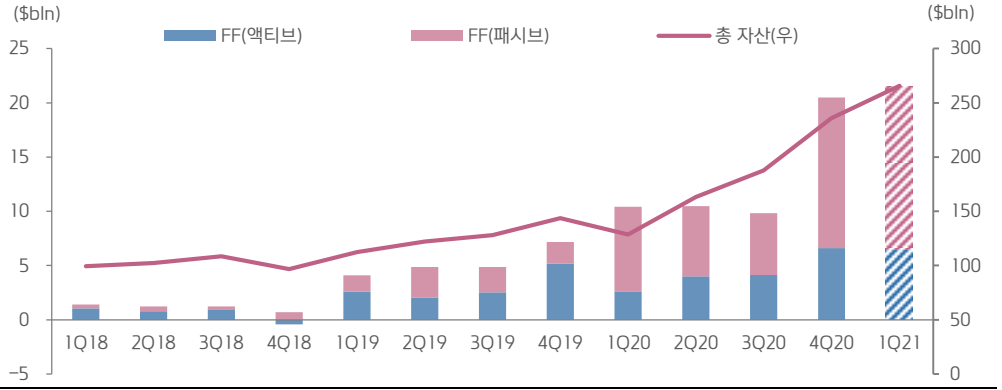
ESG 이벤트 일정

날짜	국가	이벤트	내용
3/10	유럽	SFDR 발효	-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관들,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 - 18.3월 EU 지속가능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융권 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목표
4/21	유럽	NFRD 개정안 발표	- EU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최종 개정안 발표. 기존 NFRD 용어를 CSRD로 변경 제안하고, NFRD 규칙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 포함 - 특히 이번 제안에 따라 비EU 법인의 EU 자회사도 의무보고 대상이 되며,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예정
5/24~25	유럽	EU 정상회의	- 7월 EU 집행위의 기후법(Fit for 55)입법에 앞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따른 노력과 비용 분담 방법 논의 하기 위한 회담 개최 - 이날 특별 회담을 통해 코로나 19 및 기후 변화, 벨라루스 제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EU 대응책을 논의. 회원국에 기후 변화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1월 COP 26 회의 앞두고 G20 회원국들의 열정 보여줄 것을 장려
5/29	한국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식 출범 -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통합한 자문기구로, 향후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예정
5/30~31	한국	P4G 서울정상회의	-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등 12개 국가 참여 -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 논의
6월 경	유럽	공급망 실사 의무화 입법안 제시	- EU, 인권과 환경 분야에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하는 입법안 제시 계획 - 앞서 3/10 EU 의회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에 대한 의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 채택
상반기 내	한국	K-텍소노미 마련	-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텍소노미 마련 - 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7/14	유럽	Fit for 55 패키지 발표	- 2030년까지 탄소 55% 감축을 위한 전략이 담긴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법안에는 구체화된 탄소국경조정제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21년 2분기에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개정, 에너지 관련 세금 조정, 차량 탄소 배출 기준 강화, 대체 연료 인프라 개발 관련 규정 등의 내용 담긴 초안 공개될 예정. 이후 '21년 4분기에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개정안 ▲탈탄소 가스 시장 규제 위한 제 3차 에너지 패키지 개정안 초안 공개 계획
3분기 중	유럽	ESAP 설립 입법안 상정	- EU 공통의 ESG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유럽 단일접속지점(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을 설립하는 입법안 상정
10월 중	한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적용	- 환경책임투자 추진, 생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
	중국-EU	중-EU 텍소노미 개발 논의	- 양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텍소노미 시행을 목표로,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10/11~24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 COP15	-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2020년 이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프레임워크 만들기 위한 논의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생물 다양성의 손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서식지 보호, 수질 개선, 외래종 통제 등) 등 논의
11/1~12	글로벌	UN 기후변화협약 COP26	-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며, 각국 정상 및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 서약 등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존 20년 11월에서 1년 연기 됨
하반기 중	한국	K-ESG 평가지표	- 산업통상부, 한국형 ESG 지표 표준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확정안 발표 예정 - K-ESG 평가지표란, 기업과 여러 ESG 평가기관 등에게 가이던스 성격으로 제공되는 표준형 지표로 초안은 국내외의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
연 내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 정부, 올해 안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추가 상향 계획 -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발표 예정
	한국	ESG 포털 구축	-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원활하게 뒷받침하도록 ESG 정보공유 플랫폼(ESG 포털) 구축 예정 - 더불어 기후변화와 성평등을 비롯해 ESG와 투자성과를 연동한 지수와 ETF도 준비 중. 환경 쪽에서 배출권,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수 3개 정도를 내고, 사회 쪽에서는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
	아세안	ASEAN 텍소노미 개발 착수	- 올해 말까지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법' 개발 착수 예정 - EU 텍소노미 규정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을 위한 아세안의 공동언어 필요성 지적 - 앞서 이를 위해 싱가포르 및 태국은행 총재 등 8명으로 구성된 텍소노미 위원회 발족

자료: 언론보도 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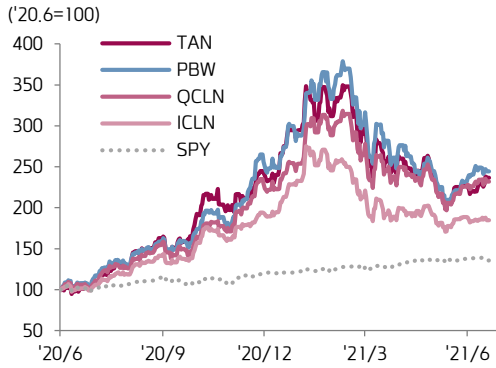
ESG Chart

미국 ESG 펀드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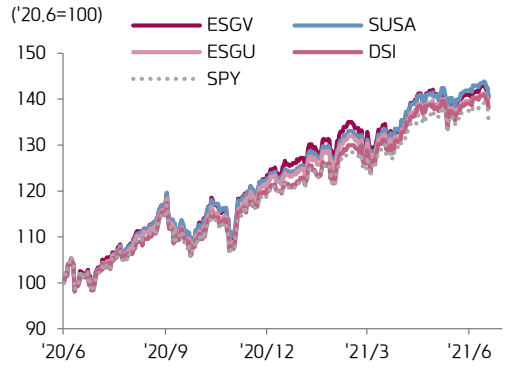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주) 21.3월 말 기준

대표 친환경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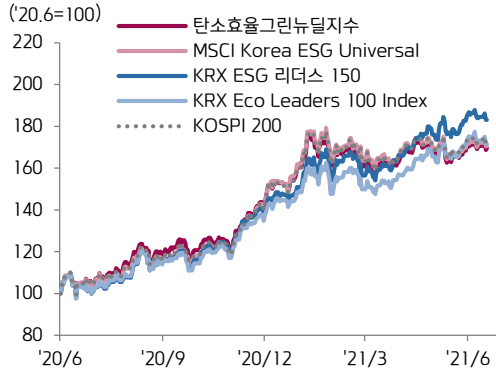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통합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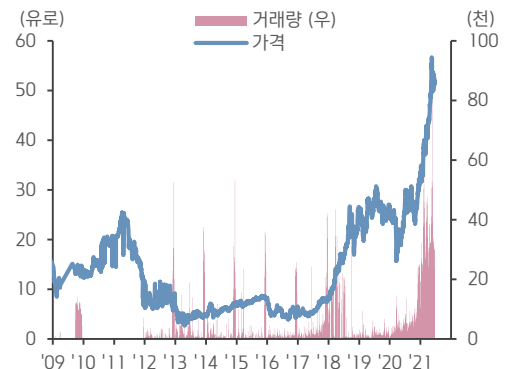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대표 ESG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탄소배출권 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ESG ETF 주간 수익률

미국 ESG ETF 리스트 (1)

티커	ETF명	분류	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1Y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사회책임, ESG	0.15	17,574.1	-1.9	+0.4	+6.2	+36.6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사회책임, ESG	0.25	7,696.3	-1.7	+1.0	+1.6	+38.7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사회책임, ESG	0.20	5,889.8	-3.1	-1.8	+3.0	+29.6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6	5,866.9	-0.5	-0.5	-4.0	+82.3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ESG	0.12	4,609.0	-1.8	+0.8	+6.3	+37.8
USSG	Xtrackers MSCI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0	3,581.0	-2.1	+0.6	+7.8	+34.8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ESG	0.10	3,483.6	-2.0	+0.2	+6.9	+34.6
SUSA	iShares MSCI USA ESG Select ETF	ESG	0.25	3,151.0	-2.0	+0.5	+7.1	+38.6
DSI	iShares Trust -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	ESG	0.25	3,151.0	-2.0	+0.8	+7.1	+36.4
TAN	Invesco Sola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9	3,127.9	+3.3	+5.5	-7.9	+134.6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	2,557.2	-1.0	+7.6	-5.4	+118.6
VSGX	Vanguard ESG International Stock ETF	ESG	0.16	2,248.6	-3.3	-0.5	+2.5	+31.3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	2,191.5	-1.9	+11.0	-13.2	+126.6
PHO	Invesco Water Resources ETF	환경친화적	0.6	1,624.1	-2.9	-0.4	+6.7	+42.1
LCTU	Blackrock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15	1,349.8	-2.2	+0.2	N/A	N/A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ESG	0.10	1,316.6	+0.1	+1.0	+1.7	-1.7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1,102.4	-1.8	+0.2	+6.5	+34.6
SUSB	iShares ESG Aware 1-5 Year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2	1,029.6	-0.4	-0.2	+0.2	+0.3
FIW	First Trust Water ETF	환경친화적	0.57	986.7	-3.8	-0.6	+4.5	+45.6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ESG	0.35	979.4	-3.9	-3.1	+3.2	+31.3
ESML	iShares ESG Aware MSCI USA Small-Cap ETF	ESG	0.17	942.6	-4.3	+0.0	-0.6	+56.8
CGW	Invesco S&P Global Water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9	942.4	-3.8	-0.2	+7.7	+40.3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ESG	0.40	925.9	-4.5	+0.2	+0.0	+60.7
ACES	ALPS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5	922.7	-1.1	+6.5	-4.4	+87.5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환경친화적	0.68	908.4	-4.3	+2.7	+0.7	+89.8
LDEM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	ESG	0.16	871.5	-1.8	+1.2	+1.2	+36.8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813.2	-2.1	-0.4	+4.7	+34.4
SUSC	iShares ESG Aware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8	759.8	+0.5	+2.1	+3.8	+0.9
NULG	Nuveen ESG Large-Cap Growth ETF	ESG	0.35	703.2	-0.3	+3.8	+10.0	+39.5
LCTD	Blackrock World EX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20	601.4	-2.7	-0.8	N/A	N/A
SNPE	Xtrackers S&P 500 ESG ETF	ESG	0.10	599.7	-2.0	+0.4	+7.5	+35.3
SDG	iShares MSCI Global Impact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492.2	-1.7	+0.7	+3.1	+43.1
ERTH	Invesco MSCI Sustainable Future ETF	환경친화적	0.65	465.1	-0.9	+20.5	+16.4	+78.5
KRMA	Global X Conscious Companies ETF	ESG	0.43	457.8	-2.0	+0.1	+6.2	+38.2
IQSU	IQ Candriam ESG US Equity ETF	ESG	0.09	445.8	-1.4	+1.0	+7.1	+36.9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탄소 배출권 트레이딩	0.79	435.9	-1.7	-1.5	+18.5	N/A
GRID	F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410.9	-2.6	+0.9	+4.3	+62.3
PBD	Invesco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5	400.3	-2.0	+3.2	-6.9	+91.3
FAN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390.2	-1.2	-1.4	-1.3	+49.7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7	387.5	-2.9	+3.8	+3.5	+73.1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5	380.9	-3.8	+0.2	-11.8	+105.7
NUMG	Nushares Etf Trust - Nuveen Esg Mid-Cap Growth Etf	ESG	0.40	322.0	-0.2	+3.6	+6.7	+39.9
SMOG	VanEck Vectors Low Carbon Energy ETF	환경친화적	0.62	298.0	+1.0	+6.4	-0.5	+92.8
EUSB	iShares ESG Advanced Total USD Bond Market ETF	ESG	0.12	292.7	-0.2	+0.7	+1.4	N/A
PIO	Invesco Global Water ETF	ESG	0.75	281.2	-1.9	-0.2	+9.5	+34.4

자료: Bloomberg, 주) 2021-06-18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2)

티커	ETF명	분류	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1Y
USXF	iShares ESG Advanced MSCI USA ETF	ESG	0.10	264.6	-1.5	+1.4	+7.9	+38.1
NUBD	Nuveen ESG US Aggregate Bond ETF	ESG	0.20	255.6	+0.0	+0.8	+1.3	-3.3
NUMV	Nuveen ESG Mid-Cap Value ETF	ESG	0.40	235.4	-5.2	-3.9	+1.5	+46.4
JUST	Goldman Sachs JUST US Large Cap Equity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20	234.0	-1.8	+0.4	+6.5	+35.1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사회책임	0.20	233.0	-2.4	-0.1	+3.4	+37.6
EFIV	SPDR S&P 500 ESG ETF	ESG	0.10	229.5	-1.9	+0.3	+7.2	N/A
EFAX	SPDR MSCI EAFE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217.1	-2.7	-1.4	+3.3	+28.7
BGRN	iShares Global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213.5	-0.3	+1.1	+0.3	+0.4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2	207.5	-2.0	+7.4	+1.3	+74.0
IBD	Inspire Corporate Bond Impact ETF	ESG	0.58	199.2	-0.3	+0.2	+1.5	-0.4
IQSI	IQ Candriam ESG International Equity ETF	ESG	0.15	198.2	-3.1	-0.4	+4.0	+29.9
BATT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0.59	186.5	-2.9	+7.0	+6.3	+86.5
EEMX	SPDR MSCI Emerging Markets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30	181.6	-1.8	+0.7	+0.1	+35.8
D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AFE ETF	ESG	0.12	181.0	-3.0	-1.5	+2.9	+30.7
ESGG	FlexShares STOXX Global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2	179.0	-2.5	+0.3	+6.2	+34.4
ESG	FlexShares STOXX US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32	175.5	-2.0	+0.3	+6.1	+36.2
KGRN	KraneShares MSCI China Clean Technology Index ETF	환경친화적	0.79	171.8	+1.4	+15.4	+9.7	+120.4
VCEB	Vanguard ESG U.S. Corporate Bond ETF	ESG	0.12	171.1	+0.4	+1.9	+3.6	N/A
ETHO	Etho Climate Leadership US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160.6	-2.5	+0.6	+2.5	+42.4
LRGE	ClearBridge Large Cap Growth ESG ETF	ESG	0.59	155.3	+0.4	+3.2	+9.7	+34.4
EMNT	PIMCO Enhanced Short Maturity Active ESG ETF	ESG	0.24	153.0	-0.0	-0.0	-0.0	+0.1
ESGA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Equity ETF	ESG	0.39	144.1	-1.7	+0.7	+6.9	N/A
CTEC	Global X CleanTech ETF	청정에너지	0.50	132.7	-0.6	+2.5	-10.7	N/A
RNRG	Global X Funds Global X Renewable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5	129.0	-0.1	+2.2	+3.7	+15.4
NUDM	Nuveen ESG International Developed Market ETF	ESG	0.40	123.0	-3.1	-0.3	+3.7	+30.1
MXDU	Nationwide Maximum Diversification US Core Equity ETF	ESG	0.34	123.0	-1.8	+2.9	+4.8	+29.6
LOWC	SPDR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12.1	-1.9	-0.3	+4.8	+34.2
HYXF	iShares Trust iShares ESG Advanced High Yield	사회책임, ESG	0.35	109.6	-0.2	+0.5	+1.4	+4.5
NUEM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ESG	0.45	94.5	-1.0	+2.8	+3.1	+46.2
RESP	WisdomTree US ESG Fund ETF	ESG	0.28	93.4	-2.4	-0.6	+5.4	+36.9
GRNB	VanEck Vectors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90.4	-0.0	+0.6	+1.3	-0.3
NUHY	Nuveen ESG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35	88.9	-0.2	+0.1	+0.8	+3.2
HKND	Humankind US Stock ETF	사회책임	0.11	73.8	-4.1	-1.4	+3.6	N/A
XVW	iShares ESG Screened S&P 500 ETF	사회책임, ESG	0.08	73.4	-1.5	+0.4	+6.9	N/A
CHGX	Change Finance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9	68.7	-1.2	+1.5	+7.6	+39.0
EVX	VanEck Vectors Environmental Services ETF	환경친화적	0.55	60.5	-3.8	-1.7	+4.3	+49.0
VEGN	US Vegan Climate ETF	사회책임, 기후변화, 환경친화적	0.60	55.3	-0.9	+2.3	+7.8	+39.3
EBLU	Ecofin Global Water ESG Fund	ESG	0.40	46.2	-2.6	-0.2	+6.8	+40.2
RESE	WisdomTree Emerging Markets ESG Fund	ESG	0.32	35.0	-2.1	+0.8	+1.8	+39.2
HJEN	Direxion Hydrogen ETF	청정에너지	0.45	33.9	-4.9	+0.6	N/A	N/A
STNC	Stance Equity ESG Large Cap Core ETF	ESG	0.95	33.2	-2.6	+1.2	+2.4	N/A
HDRO	Defiance Next Gen H2 ETF	청정에너지	0.30	33.1	-6.2	-0.2	-14.4	N/A
ESEB	Xtrackers J.P. Morgan ESG Emerging Markets Sovereign ETF	ESG	0.35	30.5	-0.6	+0.5	+2.7	+2.2
RBND	SPDR Bloomberg SASB Corporate Bond ESG Select ETF	사회책임, ESG	0.12	29.9	+0.4	+2.0	+3.7	N/A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29.4	-1.3	+0.9	+6.3	+37.8

자료: Bloomberg, 주) 2021-06-18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미국 ESG ETF 리스트 (3)

티커	ETF명	분류	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1Y
WOMN	Impact Shares YWCA Women's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28.8	-1.3	+0.9	+6.5	+46.6
XIH	iShares ESG Screened S&P Mid-Cap ETF	사회책임,ESG	0.12	28.7	-4.9	-2.8	-0.2	N/A
JCTR	JPMorgan Carbon Transition U.S. Equity ETF	기후변화	0.15	25.4	-1.7	+0.6	+7.0	N/A
NULC	Nuveen ESG Large-Cap ETF	ESG	0.20	25.3	-1.9	+1.0	+6.2	+36.8
ESHY	Xtrackers J.P. Morgan ESG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20	21.2	-0.2	+0.4	+1.4	+6.7
RAFE	PIMCO RAFI ESG US ETF	ESG	0.30	19.9	-4.5	-2.9	+2.8	+37.8
EAOA	iShares ESG Aware Aggressive Allocation ETF	ESG	0.18	19.8	-1.7	+0.6	+4.4	+28.0
YLDE	ClearBridge Dividend Strategy ESG ETF	ESG	0.60	19.5	-2.8	-1.8	+6.0	+28.4
EASG	Xtrackers MSCI EAFE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4	18.6	-2.8	-1.0	+3.5	+26.6
EMSG	Xtrackers MSCI Emerging Markets ESG Leaders Equity ETF	ESG	0.20	17.5	-1.5	+2.4	+1.4	+37.8
MID	American Century Mid Cap Growth Impact ETF	ESG	0.45	16.9	+1.5	+9.2	+7.5	N/A
TEGS	Trend Aggregation ESG ETF	ESG	1.15	16.0	-4.4	+0.2	+4.4	+5.7
MOTO	SmartETFs Smart Transportation &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68	14.3	-3.6	+0.6	-0.3	+68.3
E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SG	0.16	13.7	-1.6	+3.2	+3.9	N/A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3.5	-1.0	+4.4	+0.6	N/A
ECLN	First Trust EIP Carbon Impact ETF	청정에너지	0.95	12.8	-2.4	-0.8	+4.2	+17.6
SMLE	Xtrackers S&P SmallCap 600 ESG ETF	ESG	0.15	10.4	-5.1	-0.7	-2.0	N/A
MIDE	Xtrackers S&P MidCap 400 ESG ETF	ESG	0.15	10.4	-5.5	-2.8	-0.1	N/A
ACSG	Xtrackers MSCI ACWI ex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6	10.2	-2.3	+0.4	+3.5	+31.6
LOPP	Gabelli Love Our Planet & People ETF	ESG	0.00	9.7	-3.3	-1.1	+3.5	N/A
XIR	iShares ESG Screened S&P Small-Cap ETF	사회책임,ESG	0.12	9.7	-4.3	-1.2	-3.1	N/A
ECOZ	TrueShares ESG Active Opportunities ETF	ESG	0.58	9.3	-0.6	+2.8	+5.6	+36.6
CBSE	Changebridge Capital Sustainable Equity ETF	ESG	0.85	9.2	-3.6	+0.7	-1.8	N/A
BNE	Blue Horizon New Energy Economy100 ETF	청정에너지	0.87	8.2	-2.6	+1.3	-2.9	N/A
ESNG	Direxion MSCI USA ESG - Leaders vs Laggards ETF	ESG	0.40	8.2	-2.0	+1.3	+10.7	+33.3
ESCR	Xtrackers Bloomberg Barclays Us IG Corporate ESG ETF	ESG	0.15	7.8	+0.3	+1.9	+3.5	-0.0
RESD	WisdomTree International ESG Fund	ESG	0.30	7.8	-2.7	-0.3	+5.1	+25.5
EAOR	iShares ESG Aware Growth Allocation ETF	ESG	0.18	7.7	-1.3	+0.8	+3.8	+20.4
IVLC	Invesco US Large Cap Core ESG ETF	ESG	0.48	6.5	-1.5	+0.0	+6.9	N/A
EAOM	iShares ESG Aware Moderate Allocation ETF	ESG	0.18	5.7	-0.8	+0.9	+3.2	+12.8
ESGN	Columbia Sustainable International Equity Income ETF	ESG	0.45	5.6	-3.2	-1.6	-0.8	+27.7
EAOK	iShares ESG Aware Conservative Allocation ETF	ESG	0.18	5.5	-0.6	+0.9	+2.9	+9.0
SDGA	Impact Shar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Equity ETF	사회책임	0.76	5.4	-2.7	-0.5	+4.5	+34.8
ESGS	Columbia Sustainable US Equity Income ETF	ESG	0.35	5.3	-5.4	-4.2	+4.0	+42.2
GBLD	Invesco MSCI Green Building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39	5.1	-4.2	+0.6	N/A	N/A
SULR	SmartETFs Sustainable Energy II ETF	환경친화적,ESG	0.79	4.9	-2.0	+0.6	+2.8	N/A
AQWA	Global X Clean Water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50	3.1	-3.1	-0.9	N/A	N/A
IVRA	Invesco Real Assets ESG ETF	ESG	0.59	1.8	-4.3	+0.1	+8.2	N/A
AVDG	AVDR US LargeCap ESG ETF	ESG	0.60	1.5	-1.7	+1.4	+7.8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6-18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ESG 자료 발간 목록

2021/06/1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3주) https://bit.ly/35GxDix
2021/06/0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2주) https://bit.ly/3gjAleM
2021/05/3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1주) https://bit.ly/3uR3veJ
2021/05/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4주) https://bit.ly/3i283vZ
2021/05/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3주) https://bit.ly/3ugq4ce
2021/05/1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https://bit.ly/2Qj0yFx
2021/05/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1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bt8R97
2021/03/16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EU, SFDR 시행 https://bit.ly/3tLTsqA
2021/02/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4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3kdTdi
2021/01/28	[ETF Issue] ESG, 금융시장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https://bit.ly/3eO4szl
2020/11/10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3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https://bit.ly/3tLGgCi
2020/10/21	[ETF Issue] 패러다임 대전환 속 Green ETF 투자 https://bit.ly/3bcqpxzu
2020/07/13	[ETF Weekly] 바뀌어 가는 미래 https://bit.ly/3uPfpX0
2020/04/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코로나와 거스를 수 없는 ESG https://bit.ly/2SOClfk
2020/02/13	[ETF Issue] ESG, ETF로 투자하기 ver.2 https://bit.ly/3w8O1DA
2019/04/01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DSI.US)-글로벌 대표 ESG ETF https://bit.ly/3eMeqS8
2019/03/29	[ETF Issue]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TF에 투자하기 https://bit.ly/3uZXZr7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